



미(美) 정부의 자동차 관세 대응을 위한 업계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산업부 장관, 자동차 업계 및 연구기관과 대응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경량트럭 포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25%) 부과 발표와 관련, 3.27(목)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붙임 개요)

*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을 포함 (세부 내용 미발표)

美 현지시간 3.26(수) 17시경 발표된 美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는 4.3(목, 현지시간)부터, 부품은 5.3(토, 현지시간)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미-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수입된 자동차·차부품의 美산 비율 인증시 非미국산 부품 비중에 대해서만 25% 관세 부과, 부품의 경우 절차 확립 전까지 관세 면제

금일 대책회의에서는 美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 장관은 “美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對美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담당자	서기관	정지선 (044-203-5651)
	제조산업정책국 자동차과	책임자	과 장	박태현 (044-203-4320)
		담당자	서기관	김은성 (044-203-4321)



참고 1

美 자동차 관세 관련 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 '25.3.27일(목), 14:00~15:30
- 장소: 대한상의 1층 EC룸
- 참석자(안)
 - (정부)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 (업계) 현대차, 기아차, 만도, 현대모비스, 인פק, 자동차협회, 자동차 부품조합 등
 - (전문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연구원

□ 진행순서

- 장관 모두발언
- 미측 자동차 관세 조치 주요내용(산업부)
- 관세 영향 및 대응방안(산업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 자유토론

참고 2

美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3.26, 현지시간) 주요내용

□ (대상) 승용차(세단, 미니밴 등), 경량 트럭 및 주요 자동차부품*

* 엔진, 엔진 부품, 변속기(transmission),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 부품(세부 목록 추후 발표)

□ (부과시기) 자동차 4.3일, 자동차 부품 5.3일 이전*

* 추후 연방관보에 시행일자 게재 예정

□ (관세율) 25% (해당 품목에 대한 여타 관세 등에 추가하여 부과)

□ (근거) 무역확장법 232조

- 외국으로부터의 자동차·부품 수입 증가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

□ (예외) USMCA 충족 차량은 非미국산 부품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

* 非미국산 부품 금액(value of the non-U.S. content)= 자동차 전체 금액 - 미국산 부품 금액

- USMCA 충족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非미국산 비중에 대한 관세 적용 절차 수립시까지 유예

<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발표(3.26) 주요 내용 >

	자동차	자동차 부품
대상	승용차 및 경량 트럭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 부품 (세부 목록 추후 발표)
부과시기	4.3일	5.3일 이전 (추후 연방관보에 시행일 게재 예정)
예외	USMCA 충족 차량에 대해서는 非미국산 비중에 대해서만 관세	USMCA 충족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적용 절차 수립시까지 관세 유예 * 절차 수립 후 자동차와 같은 방식으로 非미국산 비중에 대해서만 관세